



UNPOLISHED

young design from Poland / Seoul

폴란드의 젊은 디자인 / 서울

UNPOLISHED - 폴란드의 젊은 디자인 / 서울

2012년 8월 9일(목) - 8월 30일(목)

한국국제교류재단

서울시 중구 수하동 67번지 미래에셋 센터원 빌딩 서관 19층

큐레이터: 아그니에슈카 야콥손-치엘레츠키, 파베우 그로벨르니

디자이너: 아제 디자인, 아그니에슈카 바르, 베톤, 아그니에슈카 초프와 요안나 루신, 그제고쉬 홀레비아크, DBWT, 마치에이 곤시엔니차 기에본트, 카프티 디자, 콤포트, 보그단 코사크, 말라 포르, 카리나 마루시인스카, 알리치아 파타노프스카, 오스카르 지엔타, 브조로보

주최: 한국국제교류재단, 아담 미츠키에비츠 문화원, 스탈로바 볼라 미술관

폴란드의 젊은 디자인 - 아시아 투어

2012 서울

더 많은 관객들에게

(UNPOLISHED - 폴란드의 젊은 디자인) 은 폴란드의 젊은 디자이너와 디자이너 그룹들이 이루어낸 가장 흥미로운 작품들과 성과들을 소개하여, 더 많은 관객들에게 폴란드의 디자인 전반을 알리는 전시입니다. 폴란드의 다양한 경험과 전통을 바탕으로 한 이번 전시에서 폴란드 문화의 특별함과 매력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습니다. 젊은 작가들의 재능, 경험, 독특한 아이디어와 열정을 기반으로 한 폴란드 디자인은 유럽 곳곳의 디자인 페스티벌에서 성공적인 전시를 한 명성에 걸 맞춰 국제 미술과 디자인 시장에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UNPOLISHED - 폴란드의 젊은 디자인) 전시는 지금까지 이탈리아 밀라노의 국제가구박람회, 프랑스 파리의 '디자이너스 데이즈' 와 '디자인 위크,'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디자인 위크,' 홍콩의 디자인 산업 개발전, 독일 쾰른의 응용미술 박물관과 핀란드 헬싱키의 디자인박물관을 포함한 많은 명망 있는 디자인 페스티벌과 응용미술 박물관에 전시되어왔습니다.

2012년 8월, 그 14번째 전시가 한국에 옵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은 깊고 풍부한 한국의 문화를 전세계에 소개하고 한국에 다양한 세계 문화예술을 소개하며 문화적 교류 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세계 각국의 예술가들의 작품을 소개하는데 이번에는 폴란드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선보이며 전시는 폴란드 디자인에 대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됩니다.

이번 전시는 아제 디자인, 아그니에슈카 바르, 베톤, 아그니에슈카 초프 + 요안나 루신, 그제고 쉬 홀레비아크, 드브프트, 마치에이 곤시엔니차 기에본트를 포함한 디자이너 및 디자이너 그룹 16 명의 작품 18점을 선보이는데, 오스카르 지엔타, 아제 디자인, 베톤의 작품처럼 유명하고 수성경력이 있는 프로젝트들부터 알리치아 파타노프스카, 마치에이 곤시엔니차 기에본트, 그리고 브조로보의 새로운 작품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유리나 자기로 만들어진 오브제들, 동아시아 지역에서 많은 사랑을 받는 말라포르의 공기 주입식 소파, 초프+루신 듀오의 독특한 카펫과 같은 대다수의 작품은 폴란드의 명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UNPOLISHED 전은 폴란드 디자인의 공통분모를 탐색하는 전시로서, 벌써 14회를 맞이했습니다. 본 전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모습을 달리하면서, 때에 따라 출품 작품 수를 조정하거나 새로운 디자이너와 작품들을 선보였습니다. 장소와 문맥에 따라 큐레이터들의 선택도 달라졌습니다.” 라고 큐레이터 아그니에슈카 야콥손 치엘레츠키는 설명합니다. 전시를 위해 작품이나 디자이너 선정에 있어서 우리는 다른 나라 작가들과는 차별화된 폴란드 디자인의 가장 특징적인 요소들을 찾아 나섰는데 매회 준비를 할 때마다 이런 질문에 직면했습니다: 우리가 증명하려는 것이 무엇인가? 폴란드 디자인과 다른 디자인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폴란드 디자인은 고유한 특색이 있는가? 폴란드 디자인은 재료를 만들고 선정하는 과정이 매우 구체적입니다. 폴란드의 디자이너들은 가장 단순하고 값싸며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 이를테면 나무, OSB, MDF, 펠트, 혹은 재활용 재료를 사용합니다. 작가들은 직접 물건을 제작하거나 때로는 지역 장인들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이번 전시 출품된 작품 다수는 프로토타입이거나 소규모 연작 또는 독특한 오브제입니다.

이번 전시에 출품한 작가들은 대부분 30대입니다. 그들은 폴란드의 예술그룹 가운데 가장 흥미롭고 창의적입니다. 이들은 완전한 교육을 받았으며, 작품을 디자인할 뿐 아니라 직접 제작하고 홍보합니다. 대다수의 작가들은 국제적인 무대에서 경쟁력이 있고 이미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는데, 반면 몇몇은 이제 막 첫 발을 내딛는 작가도 있습니다.

일부 작가들은 폴란드의 전통과 물질문화, 공예에 영감을 받고, 또 다른 일부는 재료, 질감 그리고 제조 기술에 매료됩니다. 하지만 이들이 공통적으로 관심이 있는 것은 디자인 과정과 콘셉트 그리고 관객과의 소통입니다. 디자인과 미술의 경계에 있는 그들의 작품은 예상치 못한 유머감을 드러내며 고전적인 의미의 디자인과는 거리가 멉니다. 디자인에 대한 이러한 비상업적, 개념적, 반예술적인 태도는 작가들로 하여금 디자인과 놀 수 있게 해주며, 디자인의 정의와 목적에 대한 토론을 이끌어냅니다. 이들에게 단순함, 수공예에 대한 관심, 주문처럼 반복되는 3xRe (Re-cycle:재활용, Re-use: 재사용, Re-duce: 절약) 등은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시에 출품된 작품들은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간결할수록 더 강한 인상을 남긴다' 라는 원칙에 맞춰 단순하고 소박하며 전통과 현대의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며 조화에 뜻을 둡니다.

본 전시는 폴란드와 세계 디자인에 전문가이자 권위자인 우치 디자인 축제의 예술감독 아그니에슈카 야콥손 치엘레츠키 그리고 디자인전의 기획자겸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파베우 그로벨르니가 공동으로 기획했습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 (www.kf.or.kr), 아담 미츠키에비츠 문화원 (www.culture.pl; www.azja.iam.pl), 그리고 스탈로바 볼라 미술관 (www.muzeum.stalowawola.pl) 이 공동주최하고 주한 폴란드 대사관 (www.seul.polemb.net) 이 후원하는 UNPOLISHED - 폴란드의 젊은 디자인 전시는 올해 아담 미츠키에비츠 문화원이 준비한 다양한 폴란드의 중요한 문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기획되었습니다.

UNPOLISHED – 폴란드의 젊은 디자인 / 서울

기간: 2012년 8월 9일(목) – 8월 30일(목)

장소: 한국국제교류재단

www.kf.or.kr

서울시 중구 수하동 67번지 미래에셋 센터원 빌딩 서관 19층

한국국제교류재단 문화센터 갤러리

관람시간: 월-토요일 10:00-18:00 (수요일 10:00-21:00), 일요일 휴관, 광복절 개관

큐레이터

아그니에슈카 야콥손-치엘레츠키 AGNIESZKA JACOBSON-CIELECKA

다수의 전시를 기획한 큐레이터이며 현대디자인 전문가 겸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2008년부터 우치디자인축제 (Łódź Design, www.lodzdesign.com) 의 예술감독 겸 큐레이터로 일하면서 폴란드 국내외의 수많은 문화기관들과 긴밀히 작업했다. 파베우 그로벨르니 (Paweł Grobelny) 와 공동으로 기획한 (UNPOLISHED – 폴란드의 젊은 디자인) / 2009, "폴란드 디자인의 천연자원" / 2009, "폴란드의 민속" / 2010, "마테리아 프리마(최초물질)" / 2010, "DZIECINADA - 아이들을 위한 디자인" / 2010, "JUST A THING" / 2011 과 같은 국내외의 수많은 디자인 전시회를 기획하고 폴란드 포즈난의 디자인 스쿨에서 강의한다. 디자인과 디자이너에 대한 홍보는 그녀가 주력하는 중요한 이력이며, 전문지를 비롯한 각종 잡지에 기고하고 있다. 2000년에는 폴란드 판 Elle Decoration 을 발간했고 2009년까지 편집장을 역임했다. 그녀는 그단스크 미술아카데미에서 회화를 전공했다.

파베우 그로벨르니 PAWEŁ GROBELNY

디자인 전시 기획자겸 디자이너로 활동한다. 포즈난 미술아카데미를 졸업하고, 파리 국립미술 학교, 리옹 국립미술학교, 프랑스 정부, 파리의 폰뇌프 재단에서 장학금을 받았다. "젊은 작가들을 위한 LVMH Louis Vuitton Moët Hennessy 2005/2006", "Parckdesign 2008", "Prodeco 2006 – 젊은 디자이너", "Prodeco 2008", "Machina 디자인상 2009" 를 비롯한 다수의 디자인 공모에서 대상을 수상했고, 바르샤바의 자헨타 국립미술관과 영국문화원이 개최한 "디자인의 새로운 주체성" 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았다. "EU 창조와 혁신의 해" 였던 2009년에는 100명의 젊은 예술가에 선정되기도 했다. 그는 브뤼셀의 알베르틴 공원과 상하이의 중산의 벤치, 그리고 폴란드, 벨기에, 프랑스, 스페인 등지의 공공시설의 실내를 디자인했다. 베를린, 브뤼셀, 코펜하겐, 뉴욕, 파리, 서울, 도쿄에서 그의 작품이 전시되었고, 현재 폴란드 포즈난의 디자인 스쿨에서 강의한다 (www.sof.edu.pl).

www.unpolished.pl